

## TBT 중앙사무국 동정

# 동남아 철강재 기술규제대응 현지활동 수행

기술규제대응과  
02-509-7254

TBT 중앙사무국은 최근 철강재관련 기술규제를 도입했거나 강화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 3개국을 방문, 현지주재 업계 관계자를 만나 업계애로를 조사하는 한편, 상대국 정부의 담당 공무원을 변담하여 고위급 서한을 통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규제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수입 쿼터, 덤핑조사 등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해오던 중 기술규제를 새롭게 도입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09.5.6 부터 인니 표준(SNI)의 인증의무화를, 아울러 7.26 부터는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09.8.1부터 말련표준(MS)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였고(8월 초에 '09.10.9로 연기) 태국은 '09.5.1부터 태국규격(TIS) 인증 요건을 강화시켰다. 우리업계의 '08년도 철강재 수출규모는 인니 3억\$, 태국 15.1억\$, 말련 7.4억\$로 총25억\$ 수준이다.

이들 국가들은 기술규제의 도입 목적을 자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자국민의 안전 강화라고 표명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인증의무화 시행일 이전에 인증획득을 위하여 인증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시료제출 요구, 인증 규정의 세부사항의 미확정에 기인한 중복된 자

료제출 및 인증 지연이라는 애로를 겪고 있다.

우리대표단은 기술규제대응과 이은호 과장을 단장으로 주재국 상무관, 현지 지사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태국과의 협의시에는 외통부 무역규제대응팀 직원도 합류하였다. 8.21일 인도네시아의 산업부와 표준화기관(BSN)과의 논의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MITI, SIRIM) 및 태국(TISI)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과도한 시료제출은 지양하기로 하고 기타 인증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TISI 회의 참석자 [좌로부터 Ms. Rampaipan(TISI 표준 1국장), 손창호 서기관(외통부), 이은호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장, Hathi TISI 부청장, Mr. Supachai (TISI 국제협력과장), 김용래 상무관]